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 역사 전시에 대한 시론적 검토

서윤희(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I. 머리말

II.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역사 전시실 신설의 의미

III.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 역사 전시에 대한 시론적 검토

IV. 역사 전시에서 전시 기법 및 매체의 활용

V. 맺음말

I. 머리말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박물관은 우리의 문화 유산을 수집·보존·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시와 교육을 행하는 곳이다. 한편으로는 디지털미디어의 시대에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아날로그적 향수를 자극하는 문화 시설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접근이 책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시대·주제·재질에 따라 다양한 박물관들이 등장하여 다층화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접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고학과 미술사 중심의 전시가 중심이 되었고, 역사학적 맥락의 전시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경복궁 3기(1986~1996)¹ 이후 역사자료실이 생겼으나 독립된 전시관으로서의 역사관을 만들게 된 것은 2005년 용산시기 이후이다. 고고학과 미술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학적 관점의 역사 전시 공간이 마련된 것의 의미는 자못 크다.

역사 논문이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과 달리 박물관의

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2006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일곱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1945~1954년: 경복궁 1기, ② 1954~1955년: 남산시기, ③ 1955~1972: 덕수궁 시기, ④ 1972~1986년: 경복궁 2기, ⑤ 1986~1996년: 경복궁 3기, ⑥ 1996년~2004년: 경복궁 4기, ⑦ 2005년~현재: 용산시기.

역사 전시는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다.²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선택한 유물이 전시되고 관람객들은 이 유물들을 통해 전시자의 의도에 기반하여 역사상을 도출해낸다. 전시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박물관 스스로가 다양한 과거들로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들이 선택한 시간, 공간에 대한 잠재력과 통찰력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³ 따라서 역사 전시에서는 전시 기획자의 역사가관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그에 따라 취사선택 되는 유물이 달라진다. 전시되는 실물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 패널이나 영상물 등 다양한 전시매체가 활용된다. 이런 전시 보조물의 도움으로 관람객들은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획자의 전시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역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의 중·근세관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통사전시체제가 완료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실은 고려시대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세 개의 실로, 조선실은 14~19세기에 걸쳐 다섯 개의 실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더 많은 실물 자료가 남아 있는 조선실을 중심으로 역사 전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광복 후 65년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설된 조선실의 상설 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선실 역사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조선실의 내용 검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전시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 전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시론적인 성격으로, 주로 주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룰 것이다. 셋째, 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운 역사 전시를 위해 활용되는 전시 보조물이 조선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역사 전시에 적용할 새로운 전시 매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⁴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해 전시 기획자들에게는 역사 전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II.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역사 전시실 신설의 의미

국립중앙박물관은 광복 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그대로 인수하여 고고학 유물이 중심을 이루다가, 1969년 덕수궁 미술관을 통합한 이후 고고학과 미술사 전시가 두 중심 축을 이루게 되었다.⁵ 이러한 전통은 정부가 주도하여 ‘민족문화의 창조’를

² 역사기술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사상과 그 역사적 의의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것이 역사계 박물관에서의 전시의 목적이며 역할이다(이영진 등, 『박물관 전시의 이해』, 학문사, 2000).

³ 전인미, 「전국 국립박물관의 전시 현황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30, 2011, 43~44쪽.

⁴ 조선실에 대한 본고의 검토는 신설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⁵ 당시 덕수궁미술관 유물은 이왕직의 풍부한 재력으로 질이 높은 미술품들을 구입한 것이었다. 반면 국립박물관 유물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발굴조사로 수습된 고고학유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통합으로 고고학유물과 미술사유물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국

시대적 과제로 삼은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그 원인은 소장유물과 연구 인력의 한계로 인해 한국사의 통시대적 역사 전시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 옛 중앙청 청사로 옮긴 국립중앙박물관에 역사자료실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역사 문헌 중심의 역사자료실⁶에 그칠 뿐이지 실제적인 역사적 맥락의 전시는 아니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2005년 용산 개관을 대비하여 역사관 전시를 준비하면서 2004년 1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역사부가 신설되었고,⁷ 2005년에 역사관이 만들어졌다. 당시 역사관은 연표실을 시작으로 한글, 인쇄, 금석문, 문서, 지도실, 왕과 국가, 사회경제, 전통사상, 대외교류실로 모두 10개의 주제실로 나누어져 구성되었다. 역사관의 당초 설계에서는 통사적 구성으로 되어 있었으나 고려시대 이후 근현대까지의 박물관 소장 역사 유물 부족으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역사관의 전시계획이 재검토 되었고⁸ 결국 장르 및 주제별 전시로 변경되어 역사관이 만들어졌다.

역사관이 만들어졌지만,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고고관으로 시대적인 배치를, 고려와 조선시대는 역사관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외형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배치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고려·조선의 시대사 전시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었고, 2007년 9월부터 통사전시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년 1월에는 논의가 확정되어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고려실, 2010년 조선실이 신설되어 구석기-신석기-부여삼한-삼국시대-발해-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통사전시체제로의 개편이 완성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통사전시 체제 구축 이전에는 한국고대문화를 고고학적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구석기~통일신라시대까지만 시대적인 구별을 하였고, 고려와 조선시대는 ‘고려 도자’, ‘이조 도자’, ‘이조 회화’ 등으로 전시실을 나누어 미술품만을 주로 하여 상설전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시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다. 마치 우리의 역사가 통일신라에서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명품 위주의 미술품은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도도히 흐르는 우리 역사의 맥락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는 힘들다.

2010년 8월 5일 조선실의 전시 개막⁹을 끝으로 완성된 통사적 전시체제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속에서도 오래된 숙원 사업을 이룬 것이고, “조선실 신설로 역사관의 통사적 전시체제 완성, 우리 역사·문화의 기반을 조명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박

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68쪽).

⁶ ‘역사자료’란 말로 인해 역사자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것들이 역사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서적이거나 문서, 종으로 된 문헌만을 역사 자료로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⁷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는 통사전시체제가 완료된 2010년 12월 해체되어 고고역사부로 통합되었다.

⁸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377쪽.

⁹ 당시 개막식은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조선실 신설-사농공상의 나라 조선”이란 제목으로 조선 건국일(1392년 7월 병신일)에 맞추어 치러졌고, 태조 이성계 호적(국보 제131호) 등 242건 431점의 유물이 선보였다.

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조선실의 신설 전시 목표¹⁰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통사전시체제는 외형적으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의 위상에 걸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역사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상설 전시화 되었다는 것은 고고, 미술사 중심의 박물관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내용을 갖춘 좀더 내실 있는 전시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 전시는 명품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미술품 전시¹¹와는 달리 그것과 관련된 사람과 사건 등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전시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전시는 전시 기획자의 선택과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만약 조선시대의 특징인 신분제를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다면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노비 등의 비교를 통해 전시를 구성하면 된다. 조선시대를 지식층의 관점이나, 통치자인 왕의 입장에서, 평민의 관점, 여성의 입장에 따라 각각 전시를 하게 된다면 전시에 활용되는 유물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근대를 보는 시각이 내재적 발전을 중시하는가,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19세기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곧 그 시대의 전시에 반영된다.

이와 같이 역사 전시에 있어서는 전시 기획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관람객은 실물자료와 그와 관련된 설명카드, 그래픽 패널, 모형, 영상물 등의 전시보조물을 통해 전시 기획자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 전시실이 상설화되었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국민의 생생한 역사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실이 조선시대 역사 연구자와 대중들 사이의 징검다리로서, 조선시대 역사 연구의 최근 경향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Ⅲ.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 전시에 대한 시론적 검토

조선실은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이고 TV 드라마나 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주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지식이나 삶에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삶의 편린을 실물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며 전시를 통해 전해지는 역사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통사전시체제에 의해서 신설된 조선실(총 면적 1163.78㎡)은 시기 및 주제에 따

¹⁰ 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분서 「2010년도 조선실 신설사업 결과보고서」(고고 역사부-36호, 2011.01.06)를 참고하였다.

¹¹ 오영찬은 “미술관의 경우 고고관, 역사관과 시기적인 중복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가 심미적인 감상 위주의 미술계박물관 전시와 지식 전달 및 교육 위주의 역사계박물관 전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하였다(오영찬, 「역사전시와 역사교육: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교과서」, 『역사문화연구』 제33집, 2009, 368쪽)

라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실로 나누어져 있다

구분	실주제	대주제					
1실	건국과 제도 정비	조선왕조의 성립	통치체제의 정비	세종대의 문화	조선 전기의 불교		
2실	사림의 성장과 문화	사림의 성장과 선비문화			대외관계		
3실	새로운 질서의 재편	예학과 붕당정치	대동법과 호적제도	화폐의 유통	조선후기 생활문화	양반의 일상	신앙
4실	탕평과 문화의 진흥	영조와 정조	지도의 발달	실학과 진경문화의 발달	중인문화의 성장	서울과 지방의 발달	한글의 확산과 여성 문화
5실	근대사회를 향한 모색	척사와 개화 그리고 개항	대한제국의 선포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	근대문물제도		

[표1] 2010년 신설된 조선실 주제별 분류

조선시대 다섯 개의 실은 각 실별로 시대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14~15세기(1실), 16세기(2실), 17세기(3실), 18세기(4실), 19세기(5실)로 분류될 수 있고,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주제들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주제분류는 전시 기본 방향에 “중·고등학생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고 친근한 전시”¹²라고 제시한대로 제7차 교육과정¹³의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기본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목차이다.¹⁴

<p>V. 조선의 성립과 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의 성립 2. 사림 세력의 성장 3. 왜란과 호란의 극복 <p>VII. 개화와 자주 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흥선 대원군의 정치 2. 개항과 개화 운동 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p>VI. 조선 사회의 변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붕당 정치와 탕평책 2. 세도 정치와 농민의 저항 <p>VIII.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2. 일제의 침략과 의병 전쟁 3. 애국 계몽 운동
--	---

[표2] 중학교 교과서의 조선시대 목차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시대사 분류이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분류사 서술을 지향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의 전시 주제 분류는 일단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시대사 분류를 따르면서 대주제 및 소

¹² 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문서를 참고하였다.

¹³ 제7차 교육과정은 열린교육, 열린학습을 핵심으로 과정중심학습을 강조한다.

¹⁴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년.

주제에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¹⁵의 내용들을 원용하였고, 문화사와 생활사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시 주제 분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관점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관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실 신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대사 전시의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다루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을 교과서의 분류를 참고하여 짜임새 있게 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역사 전시를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리 주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유물을 배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전시는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인 유물이 선택될 수밖에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유물이 모두 소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 유물을 찾는 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박물관 소장 유물에 맞게 주제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실 신설시 전시실 구성의 어려움은 매우 컸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시대를 포괄하는 주제 구성과 대어나 복제 등을 통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전시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국립중앙博, 한국사 체계 맞춰 전시관 개명”¹⁶, “건국서 대한제국까지… 중앙박물관, 조선통사를 쓰다”¹⁷,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교과서 순서대로 관람하세요!”¹⁸,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 신설 일반 공개”¹⁹ 등등 시대사 구축 및 조선실 신설의 의미를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전시는 첫 시도의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관람객들의 취향과 관심도 새롭게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때 역사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조선실에 대한 시론적 검토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²⁰

조선실은 각 실별 주제를 세분화하여 대주제, 소주제를 나누어 실물 자료를 진열장에 배치하였다. 진열장의 구별이 곧 소주제의 구별이기도 하다. 조선실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주제와 소주제 들이 조선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된 것인지, 주제들간 비중이 적절한지 등의 문제는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한다.

1실은 14세기 말~15세기를 대상으로 조선이 건국한 뒤 조선의 체제를 정비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공신 녹권과 이성계 발원 사리구를 통해 이성계를 지지한 조선 건국 세력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다. 혼일장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서도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지향한 조선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경국대전을 통해 법제, 편경과

¹⁵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년

¹⁶ 연합뉴스, 2012.7.26.

¹⁷ 문화일보, 2012.8.5

¹⁸ YTN뉴스, 2012.8.5.

¹⁹ KBS뉴스, 2012.8.5

²⁰ 2010년 조선실 신설 이후 조선실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선5실이다. 대역유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신설 때의 주제를 유지하기에는 실물자료가 너무 부족하였다. 이에 2012년 조선5실은 ‘대한제국과 근대’라는 주제로 개편을 하였다.

국조오례의를 통해 예와 악의 정비를 보여주려 하였다. 조선 전기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의 문화는 한글과 과학기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실에서 ‘조선전기의 불교’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조선실의 다른 대주제의 비중에 비해 적절한 것이 아닌 듯하다. 물론 이 전시는 회암사 출토 유물을 기반으로 하여 발굴 성과를 전시에 반영한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여서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국방과 군사와 관련된 주제가 조선실 전체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비한다면 ‘조선전기의 불교’를 지나치게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아닌가 싶다. 오히려 3실의 ‘신앙’을 다룬 것에서 언급하였다면 조선시대의 다른 종교 속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해 볼 수 있어 더 좋았을 것이다.

2실은 16세기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사림세력의 성장과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사림세력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선비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선비의 사랑방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2층 미술실에는 사랑방의 모형과 사랑방의 소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고, 1층 조선실에는 사랑방의 소품들만이 전시되어 있다. 즉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층을 달리 하여 존재하고 있다. 2층에서는 명품으로서 사랑방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만약 조선2실에 성리학과 사림 등의 이야기에 사랑방이 등장한다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또한 2실에서 다루고 있는 대외관계는 황해조천도와 통신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언급하고 있다. 패널에 간략하게 언급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전쟁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을 잘 읽어낼 수가 없다. 전쟁 이전 조선사회에서 여진과 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조선후기 사회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 청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3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하며 17세기 조선사회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우선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 강조되면서 예학을 중시하게 되었고, 예송으로 인해 봉당 정치가 심화되어 간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동법이 시행되며 점차 상업과 농업 등에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실은 주로 사회, 경제, 생활사와 관련된 호적과 호패, 상평통보, 도량형, 승경도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3실은 두 전쟁을 경험한 뒤 조선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측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변화를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를 비교하여 보여주거나, 각종 통계를 이용하였다면 조금은 생생하게 변화된 조선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실에는 평생도를 통해 양반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실의 선비문화와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다룬 것이지만 다룬 주제가 많은데 비슷한 주제로 각 실의 한 면씩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쪽은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실은 18세기 영·정조시대를 거치며 문화적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조선후기 진경문화의 발달, 중인의 성장, 서울과 지방의 발달 등을 다루고 있다. 18세기 영·정조가 행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함을 일구어낸 시대를 반영하는 을묘원행정리의궤, 평양감사향연도, 활자, 화성성역의궤, 목민심서, 동국대지도, 대동여지도 등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주제 가운데 ‘지도의

발달'은 포괄적인 다른 주제들과는 조금은 색다른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은 '실학과 진경문화의 발달'이란 주제 안에 들어가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유물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지만 그래도 뜬금없이 지도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지도가 나온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문화'는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18세기 문화의 발달을 다루고 있는 4실에 '여성문화'를 전시한 것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선후기에 여성의 문화가 절정에 달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조선후기가 되면 그 이전과 달리 조선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어 여성의 재가금지, 정절의 강조 등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었다. 이런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다루어져야 조선시대 여성이 갖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는 산업이 부흥함에 따라 공예가 크게 발전한다. 그러나 조선의 대표적 예술품인 달항아리 같은 백자를 조선실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3실에 의식주를 언급한 곳에서 백자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일상용품이다. 문화의 절정 속에서 아름다운 예술품도 꽃필 수 있듯이 백자도 그런 맥락 속에서 언급된다면 조선 사회를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실은 19세기 세도정치와 서구열강의 출현으로 인해 조선사회가 겪게 되는 대내외적인 시련을 다루고 있다. 문호를 개방하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어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지만 근대사회로의 진입은 어려운 문제였다. 동학농민운동은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농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근대적 의식에 눈뜨고 반봉건·반외세를 외친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주제는 '척사와 개화 그리고 개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로 선정하여 좀더 많은 실물 자료를 전시하고, 역사적 설명을 부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동학 관련은 '사발통문'이란 유물 하나로 그치고 만다. 한편, '근대사회를 향한 노력'이란 주제 속에서 '대한제국'을 다루었다면 대한제국의 근대적 제도 개혁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그에 관하여 언급해 주었다면 좀더 주제에 부합되는 전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실에 대한 내용 검토는 역사전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라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주제와 관련된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제와 유물의 선정, 유물에 대한 설명카드 및 패널 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음 장에서는 조선실의 각 실별 전시 내용이 전시 보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IV. 역사 전시의 전시 기법 및 매체의 활용

역사 전시를 포함한 모든 전시는 관람객을 필요로 한다. 관람객이 없다면 전시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과거 박물관은 관람객을 고객으로 생각할 만큼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최근 박물관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목표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만들

있을 뿐 아니라 전시 분야에서 실물 자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터랙션(interaction,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특정 시공간에서만 가능하던 인터랙션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랙션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체험요소를 극대화시키고 있다.²¹ 특히 인터랙션이 실제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몰입과 전시 만족도 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²²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현실과 가상 세계를 결합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인터랙션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는 실물자료 전시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형, 영상물, 체험공간,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조선실에 설치된 영상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영상 제목	분량(분)	영상 종류
전시실 입구	세계문화유산	9분 54초	④기획영상
조선 1실	조선의 통치체제	4분 34초	④기획영상
조선 2실	서원(남계서원 모형)	3분 06초	②모형설명영상
	항해조천도	4분 30초	①실사사진영상(실제유물)
조선 3실	조선의 대외무역	5분 10초	③애니메이션
	동이의 나들이-조선시대 생활풍경	6분 04초	③애니메이션
조선 4실	정조의 계획도시, 화성	5분 06초	④기획영상
	한강의 옛 모습(한강 나무 모형)	4분 48초	②모형설명영상
조선 5실	대한제국기의 변화	5분 38초	①실사사진영상(파노라마식)

[표3] 조선실의 영상물

조선실에는 총 9개의 영상물이 설치되어 있다. 각 실별로 실물자료를 전시하기 힘든 주제이거나 종합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조선실의 영상물은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실사 사진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이다(①).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항해조천도’와 같이 실제 유물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한제국기의 변화’와 같이 기록 사진을 슬라이드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항해조천도’와 같이 첩으로 된 유물은 펼친 면만 전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 만들어 놓으면 유물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어 좋다. 다만 현재 상영되고 있는 ‘항해조천도’의 사진은 확대가 불가능하여 좀더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둘째,

²¹ 최희수, 「인문학과 문화기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 『인문콘텐츠』 27, 2012, 236쪽.

²² 다감각적 인터랙티브티가 내재된 전시물은 관람경험의 몰입, 참여, 이해, 상기를 지원해 주며, 전시물의 유인력과 보유력, 전시 만족도, 관람소요시간을 증가시킨다(이보아, 「IT기반의 융합형 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 전시 시스템과 모바일 해석매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청와대관 관람객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9, 인문콘텐츠학회, 2013, 144쪽).

‘남계서원’ 과 ‘한강의 옛 모습’ 과 같이 모형을 설명해주는 보조 영상물(②)이다. 남계서원 영상은 실제 사진과 설명을 담아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한강의 옛 모습은 <경교명승첩> 등 한강의 모습을 담은 회화 작품을 실사하여 영상물로 만든 것이다. 셋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물이다(③). ‘조선의 대외무역’ 과 ‘동이의 나들이’ 가 이에 해당되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좀더 쉽게 관련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넷째, 새롭게 연출하여 만든 기획영상물로, 앞의 것을 제외한 모든 영상물(④)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설명카드와 달리 누구나 쉽게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전시 보조물이다. 또한 기획자들도 분량이 제한된 설명카드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상물을 이용하여 기획의도를 담기도 하고, 실물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실의 영상물들은 모두 관람객과 소통하기 힘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만을 한다. 특히 회화작품은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품 보호를 위해 항상 낮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시실에서 작품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확대 및 회전이 가능한 영상물은 미술품을 실물보다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조선실의 영상물은 세부를 보기 어렵게 되어 있고, 관람객이 개입하여 자기 나름대로 영상물을 볼 수 없다. 만약 임진왜란을 다룬 회화작품인 ‘부산진순절도’ 나 ‘동래부순절도’ 를 바탕으로 하여 임진왜란의 전투상황을 영상으로 구현하고, 그 영상물에 관람객이 체험할 수 어떤 동작을 삽입하게 된다면 관람객은 영상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한 몰입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실에는 영상물과 함께 모형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우선 조선실 입구에 들어서면 홍예문의 반을 돌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의 가로’ 에 수표, 조선 1실에 조선왕실의 어좌, 편경, 측우대 등의 모형이, 조선2실에는 남계서원의 모형, 조선2실과 3실 사이에 사직단 문의 모형, 3실 영상실의 휴게 공간에는 행랑마루가, 4실에는 한강 나루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조선실의 여러 모형들은 실물 자료를 대체하는 복제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 물론 남계서원이나 한강나루 모형에는 영상물을 설치하여 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지만 모형에도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랙션 기능을 첨가한다면 관람객들이 좀더 즐겁게 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어좌나 한강 나루터 모형에 증강현실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마치 그 시대, 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좌 모형에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마치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되어 어좌에 앉아 있거나, 한강 나루 모형에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마치 내가 조선시대 한강 나루터를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테니태극기나 마패, 대한국새의 모형물 등을 종이에 찍어보는 매우 고전적 방식의 체험공간이 존재한다. 물론 이런 체험공간은 관람객들이 실제 체험을 하는 공간이지만 조선실에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니다. 만약 이런 체험 공간을 터치스크린 기술을 적용하거나, 목판에 대한 인쇄체험을 하도록 미디어 테이블을 활용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전시실에서 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 형태로 만들어 관람객들의 반응을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실에 사용된 영상물, 모형, 체험공간 등의 전시 보조물은 모두 전시 기획자의 시각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달해주어 전시품과 관람객 사이에 상호적인 활동이 크게 부족하다. 영상물과 모형, 그리고 체험공간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물자료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를 기획할 때 관람객과 전시물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삼성 미술관 리움은 모바일(갤럭시 S2 기반)을 통한 전시 설명을 하고 있다. 전시해설자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관람객들은 개별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전시 유물에 대한 상세설명을 보고 듣고, 유물 이미지를 축소·확대·회전하여 세부 화면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리움의 모바일 설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감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기반의 전시 설명으로 리움 전시실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시 보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반면 전시품과 모바일을 통한 지속적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졌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국내 최초로 스마트 전시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편된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이다. 이곳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전시관을 인터랙티브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시로 전환한 것이다.²³ 이 가운데 청와대 사이버탐방은 3D 영상으로 제작된 청와대 산책로를 관람객이 자전거를 타면서 체험하는 전시 코너로 연출방법은 3면을 프로젝터로 투사하고 자전거 페달에 센싱 및 컨트롤러를 장착해서 페달을 밟으면 그 속도에 따라 영상이 변화하도록 구현하였다.²⁴ 즉 단순하게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음으로써 실제 영상의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관에는 IT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멀티미디어들이 관람객과의 인터랙션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들은 빈번한 오작동 및 파손으로 개관 초반에 사용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정보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많은 박물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전시에 접목시켜 관람자들의 전시 설명을 돕고,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전시 설명의 장점은 첫째, 접근이 용이하고, 둘째,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관람전-관람중-관람후 세 가지의 관람객의 시공간적 위치를 연결할 수 있고, 넷째, 전시실이란 물리적 공간과 모바일의 가상 공간을 상호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관람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다섯째, 터치 및 듣기, 길찾기 기능과 네비게이션, 관람객의 피드백, 타인과의 공유(메시지 보내기), 주석달기, 북마킹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이다.²⁵ 즉 모바일

²³ 이보아, 앞의 논문, 146쪽.

²⁴ 이보아, 앞의 논문, 140쪽.

²⁵ 이보아, 「연결완전성이 내재한 관람경험창출을 위한 모바일 기술의 적용」, 『인문콘텐츠』 25, 인문콘텐츠학회, 2012, 156쪽 참고).

을 통한 전시 설명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관람객이 원하는 대로 무한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관람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인터랙션 기능이 강화된 전시 설명은 전시 기획자나 관람객들에게도 전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청와대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는 전시에서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다. 스마트 폰 사용자라도 전시실에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현재는 더 많다. 이것은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이 전시 관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용할 콘텐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인터페이스가 관람객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해 약 3백만 명, 1일 평균 약 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 교육의 장이다. 지금까지 전시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시해설자의 설명이었지만 전시해설자가 관람객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인터랙션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전시 보조물을 전시실에 설치했다고 해도 이것은 관람객 몇 사람만을 만족시킬 뿐이다. 많은 관람객이 오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적당한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대규모 관람객과 전시물의 소통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시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박물관의 모든 전시 유물에 대한 상세설명을 듣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 및 전시 보조물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면 실감나는 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단말기를 제공하여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⁶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전시는 특히 시대적 맥락과 실물 자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품 전시와 달리 상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터랙션이 수반된다면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고, 좀 더 쉬운 인터페이스로 관람객들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전시 기획자의 몫이다.

모형이나 실물이 없는 가상박물관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은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첨단 기술 또한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실물자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실물과 여러 가지 전시 보조물은 유기적으로 접목되는 것이다.

²⁶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시 유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원활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전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0년 통사전시체제의 구축으로 조선실이 신설되어 상설 전시화 된 것의 의미를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실의 전시 내용과 전시 보조물에 대하여 시론적인 검토를 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광복 후 65년만에 처음으로 통사전시체제가 구축되었다.²⁷ 그 가운데 조선실은 실물 자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담아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제간 비중 문제와 역사적 맥락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전시가 보다 생생하게 관람객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실물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다양한 전시 보조품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시점에, 대규모의 관람객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시 설명 및 관람객과의 상호소통을 지향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 이전 후 2015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 상설전시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새롭고 생생한 역사 전시를 고민해보는 것은 관람객들에게도 박물관을 계속 찾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진 등, 『박물관 전시의 이해』, 학문사, 2000
조지 엘리스 버코 지음, 양지연 옮김,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200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 100년사』, 2009.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
- 오영찬, 「역사전시와 역사교육: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교과서」, 『역사문화연구』 제33집, 2009.
어일선, 「박물관 전시에서의 디지털 매체 적용에 관한 고찰-서울시립대학교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10, 2010.
전인미, 「전국 공립박물관의 전시 현황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현대미술사연

²⁷ 세계의 상설전시는 오히려 전통적인 연대기순이나 양식별 국가별 진열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전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조지 엘리스 버코 지음, 양지연 옮김,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220쪽).

- 구』 30, 2011.
- 오선애, 「전시공간과 연계한 증강현실의 정보 전달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 지식학회 논문집』, 2012.
- 최유나, 「서사적 구조에 의한 역사계 박물관 전시 연출에 관한 연구-서울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18호, 2012.
- 최희수, 「인문학과 문화기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 『인문콘텐츠』 27, 인문콘텐츠학회, 2012.
- 이보아, 「연결완전성이 내재한 관람경험창출을 위한 모바일 기술의 적용」, 『인문콘텐츠』 25, 인문콘텐츠학회, 2012.
- 이보아, 「IT기반의 융합형 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 전시 시스템과 모바일 해석매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청와대관 관람객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9, 인문콘텐츠학회, 2013.
- 김민정·전형근, 「역사 수업과 연계된 박물관 학습프로그램 구성과 실행」, 『역사교육논집』 52, 2014.